

이달의 6·25전쟁영웅

육군사관학교 생도 1·2기

청춘을 바쳐 조국을 지킨 이들



6월의 6·25 전쟁 영웅에 육군사관학교 생도 1·2기가 선정됐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전면 남침을 개시했다.

중서부 전선의 전황이 급격히 불리해지자 국군은 임관을 불과 보름 앞둔 1기생과 입교한 지 25일밖에 되지 않은 2기생 등 총 539명의 생도들의 교육훈련을 중단하고 '생도전투대대'로 편성해

이 지역에 배치했다.

생도들은 포천의 와이(Y)자형 교차로 남쪽에 위치한 372고지의 방어를 맡았고, 북한군은 박격포와 대전차포 등을 앞세워 공격을 감행했다.

생도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북한군의 남침에 맞서 지연전과 유격전을 전개했고, 특히 13명의 생도는 서울에 남아 잔류한 병력과 함께 '불안산 유격대'를 결성해 끝까지 적에 맞서 싸웠다.

육군사관학교 생도 1·2기는 6·25전쟁 기간 동안 245명이 전사하는 큰 희생을 치렀으나 주요 전선에서 활약하며 6·25전쟁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송진우 선생 서거 80주기 추모식

언론과 교육, 정치를 통해 조국독립과 근대화를 위해 헌신한 고하 송진우 탄신 135주년 및 서거 80주기 추모식이 지난달 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김창식) 주최로 열린 이번 추모식에는 송진우 선생의 손자인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와 유족, 김황식 전 국무총리, 독립유공자 후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서울대 음악대학 대학원생들의 식전 공연, 서혜연 서울대 음악대학 교수의 추모 공연, 이택선 명지대 교수의 기념강연 등이 이어졌다.